Review Article

항공우주의학회지 창간 30주년을 맞아: 학회지의 역사, 발전, 그리고 비전

김 영 효^{1,2}

¹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 ²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History, Development, and Vision

Young Hyo Kim, M.D., Ph.D.^{1,2}

¹Inha Institute of Aerospace Medicine, ²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Received: April 9, 2021
Revised: April 14, 2021
Accepted: April 14, 2021

Corresponding Author

Young Hyo Kim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7 Inhang-ro, Jung-gu, Incheon 22332, Korea
Tel: +82-32-890-2437
Fax: +82-32-890-3580
E-mail: inhaorl@inha.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2-3623-1770>

ABSTRACT The year 2021 is a significant year in which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KJAsEM)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Therefore, in this review, we look back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JAsEM and suggest the direction we should go forward. In particular, the recent development of KJAsEM was described in more detail, such as opening the KJAsEM journal homepage, an online submission system, and adopting an open access policy.

Keywords: Aerospace medicine, Anniversaries and special events, Journal article

I. 항공우주의학회지의 창간과 역사

2021년은 항공우주의학회지(이하 본 학회지)가 창간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본 학회지가 걸어온 역사와 발전 상황을 돌이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학회지의 시작은 1991년 4월 20일 서울 공군대학에서 개최된 제2차 연차총회 및 학술세미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ig. 1). 이 총회에서 한국항공우주의학회로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이와 함께 ‘항공우주의학’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故 계원철 장군의 창간사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학회지 발간이 시작되었다(Fig. 2) [1]. 창간 당시의 학회지는 현재의 논문 형

식과는 매우 다른 ‘특별 좌담’ 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국내 항공우주의학 전문가들의 담화 내용을 생생하게 옮기는 등 다양한 형식의 원고를 채택하였다(Fig. 3) [2]. 발간 초기의 학회지는 협회의 근황을 알리는 소식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와 같은 협회 주요 행사 사진과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학회지에 함께 보존될 수 있었다(Fig. 4). 또한 2000년에는 협회 초대 회장故 계원철 박사의 장례와 같은 협회의 대소사들도 특별기고와 같은 형식으로 학회지에 출판하여,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존경과 애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Fig. 5) [3].

학회지는 1991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간 2회,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4회, 그리고 2005

년부터 현재까지는 연간 3회의 발간 일정을 유지하여 왔다. 학회지의 표지 디자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표지를 개정하여 2019년까지 사용하여 왔다. 특히 2019년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협회의 위상과 발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30주년 기념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Fig. 6).

II. 학회지가 직면한 도전과 정체기

이러한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지는 근래 정체기를 겪어야만 했다. 창간 초기에는 각 호당 15편 정도의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던 데 비하여, 점점 논문의 투고 편수가 격감하여 2019년에는 각 호당 3권, 연간 9편의 논문이 출판되는 데 그쳤다. 또한

Fig. 1. At the 1991 seminar,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decided to launch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한국연구재단, KoreaMed 등에서 요구하는 학술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연구재단학술지로 등재되지 못하고 ‘국내 기타학술지’의 지위에 머물러 왔으며, KoreaMed 등재유지 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기타 학술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많은 저자들이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음으로써 우수한 논문과 저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III. 학회지의 발전 및 비전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우선 대대적인 구성의 개선을 단행하였다. 초록 및 참고문헌의 영문화, 논문 디자인의 개선, 모든 저자의 ORCID ID 의무화 등 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양식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논문의 포맷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독립적인 학회지 홈페이지가 없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논문 PDF를 업로드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김규성 회장을 위시한 현 회장단의 결단으로 학회지 전용 홈페이지를 또한 2020년에 개설하게 되었다(Fig. 7).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각각의 페이지 내에, 학술지 등재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협회 사무장에게 이메일로 논문을 투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새롭게 개설하여 모든 저자가 수시로 논문을 투고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심사자 및 편집자는 익명으로 심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대적인 논문 심사 시스템을 수립하였다(Fig. 8).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의학협회 및 산하 학회들(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항공공인적요인학회, 한국항공간호학회)이 합심하여, 각 호당 7편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회원들이 협조한 덕에, 2020년 1년간 총 21편의 우수한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다.

최근 학술지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Open Access’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회지의 모든 논문을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회

Fig. 2. Cover of the first issue and General Kay's first publication.

항공우주의학 제1권 제1호
The Kor. J. Aer. Environ. Med.
Vol. 1, No. 1, April, 1991

〈특별좌담〉

한국 항공 의학의 발자취

Footprints of Korean Aviation Medicine

이 보고자 합니다.

모하나 장사도리는 것은 제가 두번째이나 [김관 박]중후공으로 사정을 해대었는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은 아마도 이자리에서 과거의 발자취를 정리해 놓으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재미할 지언이 적게 되지 아닌 줄이겠습니다. 이곳에 황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경화: 어려운 한낱하십니까? 오늘 "항공우주 의학"이라는 종합학술지 창간에 즈음하여 축하와단에 나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좌담회 시작하기 전에 항공의학 발전에 위해 특별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단히 고인을 위해 잠시 묵념을 올린 뒤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일동독일.....마로>

오늘의 좌담회에서는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항공의학의 발자취를 회고하는 뜻에서 아마도 공군병원이 설립된 1949년부터 항공의학연구원(현 항공의학연구소)이 태동하기 전 1960년 중반까지 약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정리할 계획이오니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각각 사담에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계명원: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 이 자리에서 최원장님께서도 공군병원 부원장까지 지내신 김규제 박사님께서 먼저 공군과의 인연에서 재미났었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공군의무 진영의 탄생(1)—

김규제: 처음에는 공군이 아니고 육군으로 48년 6월에 군입대 사용정도 훈련반으로 입관하여 수도 육군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었지요. 그때는 공군이 따로 없었고 같은 육군의

항공대원입니다. 그 당시 김로에 있던 항공대 고급 장교들이 최로를 받느라 대대동에 있던 수도 육군병원(현 공군본부 병교식당 자리)에 자주 왔는데 그중 장덕봉(장덕승씨장형)가 공군병원으로 오라고 권유했고, 본인도 그때 신해 세사함과 근무하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어서 다른 데로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9년 경에 공군병원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제마사(당시 대위)가 활동하고 계시고, 장덕승도, 고영철씨 제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최로 Unit을 한데 묶어놓고, 기공사 이병식, 최희사 한사당 더 있어이 되겠다해서 최원구씨를 데려왔습니다. 그후 나보다 만년후에 김재용씨가 왔는데 당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여름에 일년에 나가서 일광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새로 생긴 항공대 관사에 내대한 신촌 초인 최원구씨를 들어가게 했는데 전생이 나사 재산을 다 날리고 나는 별 피해를 안입었습니다. 제 박사도 그때 관사에 있었지요? 또 6·25 직전에 신승우마사 박관규씨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시작해서 1957년도에 제대했습니다.

박경화: 공군 항공의학연구소의 발족과 산과역을 하시고 초대 연구소장을 지내셨던 서순규 박사님께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서순규: 1946년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1950년 6.25가 나서 그때 12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1.4후퇴 직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육군병원으로 개편되어 병원에 있던 사관 원원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몇사람이 공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주근원씨, 윤원식씨, 박진영씨, 주동운씨 외 여러분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대해서 대구 칠성국민학교에서 훈련받다가 후퇴하는 바람에 제주 모슬포로가서 50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어느 시골 국민학교 교실을 빌

이와 같은 여정이 끝임까지서 오늘날의 민항공으로 부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에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항공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한국항공 의학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정리해왔으므로 항공우주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믿어 마지 않습니다. 현재 공군병원이 43년, 민항병원이 23년이인 세월이 지난것입니다만 항공의학의 길을 걷는 후학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간 저희와 주시면서 있었던 서비스를 곁들여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하는 이자리에 모신 분중에서 중간시대에 활동 하였던 박경화박사와 문명환 교수께 각각 분담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군부원장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즉 항공의학의 현대적 계획이 완성된 때까지를 더듬

계명원: 안되십니까? 이가 깊은 여정이 끝임까지서 오늘날의 민항공으로 부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에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항공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한국항공 의학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정리해왔으므로 항공우주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믿어 마지 않습니다. 현재 공군병원이 43년, 민항병원이 23년이인 세월이 지난것입니다만 항공의학의 길을 걷는 후학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간 저희와 주시면서 있었던 서비스를 곁들여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하는 이자리에 모신 분중에서 중간시대에 활동 하였던 박경화박사와 문명환 교수께 각각 분담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군부원장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즉 항공의학의 현대적 계획이 완성된 때까지를 더듬

원가입이나 로그인, 그리고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뜻한다. 본 학회지는 Open Access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새롭게 개설된 논문 홈페이지에 창간호부터 최신평까지의 모든 논문을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학술지는 최근, 국제학술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에

등재되었다. 그 외에도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논문 투고규정과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논문심사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data sharing policy 및 advertisement policy와 같이 현대 학술지에 요구되는 규정들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회장단과 편집위원회, 그리고 전 협회원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

Fig. 8. Our journal's online submission system newly opened in 2020 (<http://www.kjasem.org/submission/>).

으로, 향후 가장 먼저 달성하여야 할 숙원 중 하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그리고 KoreaMed 등의 학술데이터베이스 재등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에 다시 정상적으로 등재됨으로써, 우수한 국내외 저자들이 본 학회지에 관심을 갖고 양질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우수한 논문들을 발판으로, 차후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항공우주의학 전문가들을 본 학회지의 국제 편집인(international editor)으로 초빙하고, 그들의 우수한 논문을 청하여 출판함으로써, 향후 SCOPUS 등 국제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Young Hyo Kim, <https://orcid.org/0000-0002-3623-1770>

REFERENCES

1. Kay WC. First editorial note for the KJAsEM. Korean J Aerosp Environ Med 1991;1:4-5.
2. Park KH, Kim ES, Kim KT, Seo SK, Chae YE, Park HB, et al. Footprints of Korean aviation medicine. Korean J Aerosp Environ Med 1991;1:10-25.
3. Lee YH. Special report of the late General Dr. Kay's funeral ceremony.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00;10:3-8.